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험계리사회 이재민 회장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미국계리사회 SOA가 개최하는 제8회 아시아 태평양 연차 심포지엄 (Annual Symposium)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을 한국보험계리사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계리사회(SOA) 회원의 수가 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가 그 분들에게 계리사로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계리사회 회원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IFRS17과 IFRS9이라는 새로운 보험회계제도와 K-ICS라는 새로운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이 전통적인 방식의 계리업무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심포지엄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 하나의 주제들은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보험업계는 도입이 예정된 새로운 회계제도와 지급여력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개별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하였으며, 일부 회사들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장담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예상보다 많다는 의견을 무시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문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실질과는 무관하게 다수의 보험회사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입니다.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들의 경우에 현재 보유계약의 일부가 금리역마진 및 악화된 손해율로 인해 매년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유계약들로 부터 예상되는 미래손실의 평가액을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시점에 일시에 부채로 계상하게 되면 순자산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듀레이션이 장기인 보험계약의 부채를 소위 말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단기인 한국의 많은 보험회사들이 자산부채 미스매치에 의한 손익 및 자본상태의 과도한 변동성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FRS9의 도입시기를 미루어서 보험회사들이 자산부채 미스매치에 의한 변동성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는 했지만 한국의 보험회사들에게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재무적 영향과는 별개로, 매 결산기마다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및 공시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정확한 재무정보들을 필요한 시점까지 생산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회계제도와 비교해 볼 때, 그 절차의 복잡성이나 필요한 계산의 양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보험계약 부채의 평가방식은 판매시점에서의 계리적 가정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어서 현재의 Valuation System은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하게 설계되었고 Valuation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부채 적정성 평가(LAT)를 위해 매년 계리적 가정을 수립하여 보유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작업이 추가로 수행되기는 하지만, 그 복잡성이나 정교함은 새로운 제도에서 요구되는 수준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 요구되는 계산의 복잡성과 계산의 양을 고려했을 때, 부채평가에 필요한 시스템의 성능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현저히 향상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회계제도에서는 보험계약 부채평가의 결과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서 각각 단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회계사는 계리사가 가져온 단 하나의 숫자만을 받아서 재무제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제도에서는 부채평가의 과정에서 산출되는 많은 숫자들이 복잡한 공정을 거쳐 재무제표의 핵심적인 계정과목으로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리사와 회계사의 긴밀한 협업과 정교하게 설계된 회계시스템 및 업무 프로세스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계리사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제도로 인해 당면하고 있는 핵심 과제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은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계리사들의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계리사들은 보험회사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품설계와 프라이싱, 보험계약부채의 평가 및 손익분석, 전략적 자산배분 및 금리리스크의 관리, 전사적 위험관리 및 자본효율성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관리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새로운 보험회계제도와 지급여력제도가 한국에 도입되면서, 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보험감독당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계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국내에 순조롭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계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계리사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그에 따라 관련된 감독제도의 변화를 계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감독 당국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규칙(Rule)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계리업무 관행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의 보험회사들과 계리사들에게 원칙(Principle)중심의 새로운 회계제도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가 대단히 낯설어 보이는, 쉽게 친숙해지기 힘든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가 한국보험계리사회의 모든 회원들이 새로운 제도의 순조로운 도입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간추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많은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수행하는 데에 전문인력이 턱없

이 모자란다는 보험업계 고민의 해결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계리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두 계리사회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SOA 관계자(Peter Duran, Sue Blanck 등)와 발표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